

日 자민당 보궐선거 참패... '기시다 끌어내리기' 시작될까

3곳서 모두 제1야당 입헌민주당 후보 당선 '보수 왕국' 텃밭서도 자민당 후보 크게 패배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28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기존에 보유했던 의석 3석을 모두 제야당인 입헌민주당에 내주는 참패를 당했다. 반면 남게 20%대 이하 저조한 지지율로 버티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는 '치명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야사신문은 28일 "자민당 전패는 2012년 정권 교체 이후 지속된 자민당 우위 체제가 붕괴하는 징조라고 해야 할 민의의 심판이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 중심으로는 다음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인식이 자민당 내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커져 '포스트 기시다'를 노리는 유력한 중진 인사들의 움직임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국회 해산 대신 자민당 총재 재선 겨냥?...스가처럼 퇴진할 수도 이번 선거 대상 지역인 중의원 도쿄15구, 혼슈 서부 시마네 1구, 규슈 나가사키 3구는 모두 자민당 의원들이 활동했던 곳이다. 비자금 사건으로 비판받은 자민당은 도쿄 15구와 나가사키 3구에는 아예 후보를 내지 못해 유일하게 후보를 공천한 시마네 1구에 사활을 걸었다. 기시다 총리는 선거 고시 이후 두 차례 시마네현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고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자민당 의원들도 의석 사수를 위해 유세전에 참여했으나, 결과는 17.6%포인트 차 대패였다. 특히 '보수 왕국'으로 불리는 시마네

현은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93년 이후 자민당이 무패를 자랑한 유일한 지역이 있지만 지역 민심은 자민당에 싸늘했다. 마이니치신문은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기다리지 않고 '기시다 끌어내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각에서 거론돼 온 6월 국회 종료 이전 중의원 조기 해산카드를 쓰는 대신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소득세·주민주세 감세를 시행한 뒤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재선을 노릴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6월 감세 시행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으면 기시다 총리가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기시다 총리 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2021년 4월 보선과 재



3곳의 보궐선거에서 전패하며 정권 위기에 몰린 기시다 후미오 총리.

선거에서 전패한 뒤 도쿄도 의원과 요코하마 시장 선거에서도 패배하면서 그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형태로 물러났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현재 일본 제1당은 자민당이다.

◇차기 총재선거 출마 저울질하는 모테기·고노... '유력 후보 부재' 견해도 자민당이 기시다 총리를 다음 선거에서 간관으로 내세울 수 없다면 '포스트 기시다'를 의식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망했다. 신문은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

장, 고노 다로 디지털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이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테기 간사장은 자민당 기존 파벌 중 유일하게 해산을 선언하지 않은 '아소파' 수장인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관계가 원만해 지지 세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와 경쟁했던 고노 디지털상,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이미 공부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다투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새로운 자민당의 '얼굴'로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총리 외에는 (사람이) 없다"는 자민당 간부 발언을 소개하면서 "유력한 포스트 기시다 후보가 없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美 대학 가자전쟁 반대시위 확산으로 몸살

UCLA선 親팔·親이 시위대 '충돌'

'가자전쟁 반대' 시위가 미국 대학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2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캠퍼스에서 이스라엘 지지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현장에서 맞불 집회를 벌이다가 양측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 UCLA 캠퍼스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몸에 두르거나 손에 든 친(親)이스라엘 시위대 수백명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모여 있는 잔디밭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반대편 시위대와 대치 상황을 지속했다. 팔레스타인 전통 복식인 체크무늬 두건(카피예)을 두른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스크림을 짖는 상태로 친이스라엘 시위대의 진입을 막았다. 양측이 얼굴을 바로 맞댄 상황에서 고성이 오갔으며, 상대방을 밀쳤다가 뒤로 물러서는 상황이 반복됐다. 다행히 이날 대치로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미 대학가 시위에서 이스라엘 정부 지지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현장에 서 맞불 집회를 벌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이 직접 물리적으로 접촉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캠퍼스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아이비리그에서 시작된 대학가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며 긴장이 고조된 것은 드문 일이었다. 대학 측도 이날 양측 시위대 간 설치돼 있던 분리시설이 풀리고 양측 시위대 간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이날 성명에서 "UCLA는 평화적 집회의 장소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오늘 같은 폭력이 발

생해 가슴 아프다"며 사태가 격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지난 24일 인근 서던캘리포니아대 캠퍼스에서 가자전쟁 반대 등을 외치며 텐트 농성을 벌이던 학생 108명이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미국 대학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 등을 촉구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확산하면서 졸업 시준 및 학기말을 앞두고 캠퍼스가 몸살을 앓고 있다. 뉴욕타임스 집계 따르면 이날 18일 뉴욕의 컬럼비아대에서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이 반대하며 텐트 농성을 벌이던 학생 108명이 연행된 것을 계기로 촉발된 시위로 지금까지 미 전역의 대학에서 7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연합뉴스

졸지에 1살된 101세 美 할머니... 항공사 시스템 오류

미국 항공사의 예약 시스템 오류로 항공기에 탑승한 101세 할머니가 1살 아기로 인식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2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 사는 퍼트리샤 씨는 최근 아메리칸 항공을 타고 시카고와 미시간주 마켓 사이를 팔과 함께 여행하다가 1살 아기로 오인당했다. 항공사의 예약 시스템이 퍼트리샤 씨가 태어난 1922년을 인식하지 못하고, 2022년생으로 잘못 파악한 것이 문제였다. 항공사 직원들은 1살 아기 대신 101세 할머니가 나타나자 화들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퍼트리샤 씨는 "팔이 티켓을 온라인으로 예약했는데, 공항 컴퓨터가 내 생년을 1922년이 아니라 2022년으로 생각한 것 같다"며 "지나례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항 컴퓨터 시스템이 100년이 넘는 과거의 생년월일을 처리할 수 없어 대신 100년을 더한 생년월일을 기본값으로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97세까지는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여행했다는 퍼트리샤 씨는 10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파키스탄 탈레반, 현직 판사 납치...조직원 석방 요구

파키스탄 탈레반이 현직 판사를 납치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지난 27일 차량으로 이동 중이던 샤키룰라 마르와트 판사 쪽으로 무장한 남성 20여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했다. 이들은 차를 멈춰 세운 뒤 마르와트 판사를 납치했고, 그가 타고 있던 차에는 불을 질렀다. 현지 경찰은 마르와트 판사가 납치된 뒤 그가 등장하는 영상 메시지가 도

착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마르와트 판사는 "파키스탄 탈레반(TTP)이 자신을 납치했지만, 자신은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과 주정부에 향해 자신의 석방을 위해 TTP의 요구를 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마르와트 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TTP 조직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내·할이 빛나는 기획도시 광주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와 함께 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양육공백기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위기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서비스 유형(기준중위소득)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15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80시간~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대표번호 **1577-2514** 가까운 센터로 자동연결

홈페이지 <https://gj-idolbom.or.kr>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Gwangju Metropolitan City Child care Wide Area Support Center